F1대회 은행권 투자사, 공사비 1025억 증액 부담서 제외

전남도 275억 분담 "도민 부담 가중"

주주 협약 사실 적극 공개 안해 비난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 건설 공사비가 애초보다 1025억원 증액된 상황에서 전남도가 부담해야할 액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회운영법인인 KAVO 출자사 가운데 신한·농협·광주은행 등 3곳의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 추가 출자를 하지 않기로 주주 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영조 KAVO 대표는 22일 밤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F1 대회지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재(광양1·민주) 의원의 "경주장 추가 공사로 늘어난 증액분 1025억원은 투자사가 어떻게 분담하느냐"는 질의에 "KAVO 출자사 중 은행권 투자사 3곳은 추가 출자를 하지 않기로 주주간 협약을 맺어 나머지 출자사가 공동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KAVO는 MBH 보유 지분율 17%를 인수한 SK건설(41.67%)과 전남도(28.83%), 전남개발공사(15%), 신한은행(6.67%), 농협중앙회(6.67%), 광주은행(1.17%) 등이 출자하고 있지만 재무적 투자자인 신한·광주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주주간 협약에 따라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뒤늦게 바뀐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은행권 투자사의 요구로 주주사들은 모두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애초 추가 공사비 1025억원 중 국비로 308억원을 확보키로 하는 한편, 나머지 금액은 주주사들이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재무적 투자자들은 주주 협약에 따라 공사비 증액 부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또 추가공사비(1025억) 중 재무적 투자자 3곳을 제외한 자체 분담액 275억을 산정,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부실한 공정 관리로 도민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우려, 전남도가 재무적 투자자들의 경우 공사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공개를 꺼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무감사에서 "재무적 투자자를 제외한 주주들이 추가부담하도록 돼 있다"면서 "재무적 투자자는 원래 성격상 대출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지 추가 출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긴급 최고회의 참석하는 손학규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등 장외투쟁에 나섰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논의

강운태, FISU에 '프레올림픽' 추진 제안

광주시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를 2016년 브라질 올림픽의 프레올림픽으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광주U대회를 프레올림픽으로 치르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되도록 광주U대회에 참석하도록 하면 유명 스타 선수들이 모두 광주를 찾게 돼 대회의 품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브라질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현재 FISU 집행위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강 시장은 조지 킬리안 FISU 집행위원장과 만나 광주U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U대회를 인프라·운영능력·시민의 자발적 참여 등 3가지 요소를 충족시켜 친환경(Ecoversiade), 첨단기술(Itversiade), 문화(Cultureversiade), 평화(Peaceversiade) 등 4대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이 먼저"

강운태 "박준영 지사 만나 광주공항 논의 용의"

강운태 광주시장이 국토해양부에 광주공항 이전에 앞서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역현안인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 사이의 갈등이 아닌 상생의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외순방 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광주공항 이전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공항 이전에 앞서 무안공항 활성화가 추진돼야 하며 그 뒤에 광주에 지원을 요청하면 응할 용의가 있다"며 "영국의 경우 히드로국제공항이 있는데도 런던시내에 런던공항이 있고 일본 도쿄나 미국 뉴욕 등도 마찬가지이며 정부가 먼저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해 성의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광주공항 이전을 둘러싼 전남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만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나 묵묵부답이고, 광주·전남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해도 별 반응이 없다"며 "광주공항 이전을 모두가 찬성하면 없앨 수 있지만 공항을 다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알맹이 없이 끝난 국회 국제경기특위

박준영 "F1 입장수입 400억 예상했는데 180억"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위원장 황우여 의원)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예산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상적인 문답을 주고받은 뒤 정회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권선동 의원은 "F1대회의 성공을 축하한다. 그런데 경기장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SOC 예산이 부족해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년에는 유념해서 잘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F1대회 결과에 대한 총평과 전남도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달라"며 "구체적으로 입장권 예상 수입과 실제 수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지사는 "비가 와서 걱정됐는데 그런대로 성공했다"며 "하지만 경기 전 비가 많이 와서 시설물 건설이 늦어져 많은 애로 있었다. 경기를 할지 못할지 모른다는 분위기 때문에 스폰서 잡기도 힘들었다"고 토로한 뒤 "이 때문에 400억원 정도 예상했던 입장수입은 180억원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숙박도 제일 큰 문제 중 하나였는데 당초 크루즈선 이용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박 지사는 "임차료와 수익의 차가 많아 나서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이에 윤 의원은 "처음부터 비싼 임차료, 안전성 등 때문에 비현실적인 것이었다"고 평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F1대회가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다"고 축하해 준 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경주대회인 만큼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나면 개인 휴대용 텔레비전 없으면 이후 경기 내용을 볼 수 없었으며 안내방송도 부족해 경기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하자 박 지사는 "가설스탠드에서는 방송을 볼 수 없었다. 죄송하다"며 "다음부터는 차질 없도록 잘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유일한 특위위원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해당 상임위인 교과위에서 법안을 심의하느라 참석하지 못해 알맹이 없는 특위 회의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상천·최인기·박지원·이용섭·김동철·김효석

광주·전남 6명 국감 우수의원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3일 2010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84명을 선정, 발표하고 국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우수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48명, 민주당 28명, 미래희망연대·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무소속 각 2명이다.

광주·전남지역 의원으로는 박상천·최인기·박지원·이용섭·김동철·김효석 등 6명이 선정됐다.

각 부분별로 모범의원으론 정의화·홍재형 국회부의장과 이용희 법사위원, 조순형 문방위원, 김충조 행안위원, 박상천 국방위원이, 우수 상임위원장에 허태열 정무위원장, 김성조 기재위원장,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김영환 지경위원장이 각각 뽑혔다.

상임위별 우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김성태 김유정 박기춘 박지원 정옥임 ▲법사위=노철래 박영선 이주영 주성영 ▲정무위=권택기 박병석 박선숙 이성남 이성헌 이진복 ▲기재위=김성식 박근혜 오제세 이용섭 이한구 이혜훈 전병헌 ▲외통위=구상찬 김동철 김효재 원혜영 유기준 홍정욱 ▲국방위=김옥이 김학송 신학용 유승민 ▲행안위=김태원 박대해 유정현 이명수 정수성 최규식 ▲교과위=권영길 권영진 김춘진 박보환 서상기 ▲문방위=김부겸 안형환 이철우 전혜숙 최문순 한선교 허원제 ▲농식품위=김우남 김학용 김효석 류근찬 정해걸 황영철 ▲지경위=김재경 김진표 박민식 이종혁 정태근 홍일표 최연희 ▲복지위=강명순 손숙미 윤석용 전현희 정하균 최영희 ▲환노위=신영수 조해진 홍영표 홍희덕 ▲국토위=김기현 김희철 백재현 안홍준 장윤석 전여옥 정희수 ▲여성위=김금래 김상희 김재윤 이애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3년 연속,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년 연속 우수의원에 각각 선정됐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모범국회의원상을 2년연속 수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since 1985. CH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전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광주18기) 11월 26일(금) 14:00-17:00
광주19기) 11월 27일(토)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선회관 뒷편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 9만원(교재포함)
· 기간 : 매주1회 3시간/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 중의계(5년) 결업증과 중국침구사, 중의사, 추나사 자격취득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 총동문회 창립(2010.5.29) CH중국문화원 전문과정 졸업자분들은 연락바랍니다.
CH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010-8494-9484